



LEGAL UPDATE

ESG센터

Nov. 2024

섬유산업 공급망 관리

EU 집행위원회는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발효 후 6년 내에 산업 부문별 접근방식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므로 섬유산업의 공급망 관리도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산업 부문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s,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SASB는 의류·액세서리·신발류 산업에 대해 해당 산업 공급망에 있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 관리, 공급망의 환경적 영향, 공급망의 노동 조건, 원자재 소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섬유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EU 그린클레임 지침, EU 에코디자인 규정,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등 글로벌 규제와 미국·EU 등 규제 당국의 섬유와 패션 산업업체들에 대한 공급망 내 취약점 조사 등 동향을 체크해야 합니다.

1. 배경

EU집행위원회가 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를 2022. 2. 23. 처음 제안하였을 당시, CSDDD는 인권 및 환경 리스크가 높은 고위험군(high-impact sectors) 산업부문을 선정하며 OECD 실사 가이드에 따라 섬유(textile)산업을 이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전문 (22)).

이러한 섬유산업의 고위험군 분류는 CSDDD가 수정을 거치며 2024. 7. 25. 발효된 최종안에서는 삭제되었지만,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지침 발효 후 6년 이내에 고위험 산업에 대한 부문별 접근방식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섬유산업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은 여전합니다. 이에 해당 산업 부문에서 공급망 관리를 위해 어떠한 영역을 중점으로 두어야 하는지, 현재 적용되는 주요 규제가 무엇인지, 규제동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등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섬유산업 내 중점 관리 영역

ESG 정보 공시에 관한 주요 글로벌 표준 가이드라인 중 하나로는 미국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s,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재무적 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ESG 이슈를 산업별로 중요성 지도(Materiality Map)를 통해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개념체계 및 적용지침과 총 7개 산업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다수 기업은 해당 SASB 기준을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리 대비 가능하도록 그 주요 내용을 국내기업들을 위해 번역·공개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산업 구분을 통해 그 기준을 제시하는 만큼, SASB 기준은 의류·액세서리·신발류(Apparel, Accessories & Footwear) 산업이 공시해야 할 사항(Disclosure topics)으로서, 중점 관리하여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 관리

의류, 액세서리 및 신발 제품에는 유해하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부정적인 효과 발생 시 규제 감독이 강화되고, 기업의 대외적 평판에 큰 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검사와 안전한 대체물질 사용 도입이 필요하며,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사전적으로 문제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망의 환경적 영향

의류, 액세서리 및 신발 산업은 공장 가동과 염색 등을 동반하는 생산방식으로 인해 심각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일으킨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엄격한 화학물질 검사 및 친환경 염료 사용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하며, 공급업체에 대한 점검 등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시 기업의 평판에는 물론, 비용 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공급망의 노동 조건

해당 산업의 공급망 내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와 권리 보호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점 더 큰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급업체·하청업체·인력모집회사·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산업노동시장의 다계층 시스템이 문제 해결의 난이도를 높이지만 공급망 내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임금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공급업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실추와 파업·정부의 노동규제 등을 통한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라. 원자재 소싱

해당 산업은 면, 가죽, 양모, 고무, 귀금속 및 금속을 포함한 수많은 원자재를 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합니다.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 등 다양한 문제가 원자재 수급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선적 지연 및 수익 감소가 일어나 매출 성장이 제한되고 자본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인증된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대체 재료나 순환 경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3. 섬유산업 관련 글로벌 규제

섬유산업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전세계 주요 규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칭	준수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
EU그린클레임 지침(EU Green Claims Directive)	- 기업의 B2C 관계상 친환경적이거나 환경에 무해하다는 주장 등을 담거나 인상을 주는 모든 문구 및 이미지 등이 규제 대상	- EU역내 연 매출의 최대 4% 벌금 부과 또는 연 매출정보가 없을 경우 최대 2백 만 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직접적인 환경 관련 주장(daim)은 독립적인 제3기관의 인증 필요 - 환경 관련 라벨 및 인증에 대해 최소한의 투명성, 객관성, 독립성 등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은 더 강한 규제 마련 가능
EU 에코디자인 규정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시장판매 이전에 에코디자인 요구조건 준수(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부작용 없음, 독점 기술 강요 금지 등) -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마련 - 요구조건 만족 인증을 10년 간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별 제재규정에 따름
EU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 (Europea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r Reg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재는 재활용성 비율이 70% 이상 - 해당 비율에 따라 생산자 책임 부담금 부과 결정 - EU 내 이용(수입되는 포장재 포함)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최소 비율만큼 포함 - 제3국에서 EU로 수입되는 포장재는 재활용 관련 대기·수질 및 토지로의 배출 감소 관련 동등한 규정이 있는 국가로부터만 수입 가능 - 그 외 포장 최소화 의무, PFAS 사용제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 금지 및 벌금 부과
EU 강제노동제품금지 규정(European Forced Labor Reg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및 퇴출) 강제 노동 의심 제품은 조사를 받고, 확인 시 해당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 - (고위험 지역) 강제 노동이 국가적으로 강제되는 고위험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은 특별히 주의 깊게 조사 - (재출시 조건) 강제 노동 제거 시, 제품은 다시 시장에 출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퇴출: 강제 노동이 확인된 제품은 EU 시장에서 퇴출되고, 해당 제품은 기부·재활용·파기 - 벌금: 벌금 부과 - 세관 압류: 세관에서 압류, 이후 기부·재활용·파기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재소자 노동, 계약 노동, 아동 노동 등을 포함한 비자발적 노동으로 정의 - 미국으로 수입되려는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이라면 수입이 금지되는데,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된 제품과 특정 단체(기업)가 관여한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었다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었다 추정될 시, 별도 입증없는 한 제품 수입 금지 - 강제노동과 관련된 외국인인 미국 내 자산거래 금지 - 강제노동과 관련된 외국인인 미국 입국 및 비자발급이 제한

4. 섬유산업 관련 글로벌 동향

최근 섬유산업 부문에서 주목해야할 규제 관련 주요 글로벌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p>美 캘리포니아주, 의류 재활용 관련 법안 미국 최초 법제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쉬 뉴먼 민주당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발의하여 의류 생산자에 적용될 '책임있는 섬유 복구법(Responsible Textile Recovery Act)'이 2024. 9. 28. 주지사 서명과 함께 공식 법제화 - 의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의류 재활용 등을 다룬 미국 내 첫 법안으로 평가 - 캘리포니아주 의류·직물 생산업체에 2026년까지 폐의류 수거 장소, 우편물 반송 프로그램 등을 고안할 비영리기구 설립 의무 부과 - 의류 재활용을 위한 drop-off locations를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 전역에 설치
<p>이탈리아, 중국 패션업체 쉬인 그린워싱 혐의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탈리아 반독점 규제기관 경쟁청 (Autorità Garante della Concorrenza e del Mercato, AGCM)은 중국의 패스트패션 쇼핑몰 업체 쉬인(Shein)의 그린워싱 혐의 조사 착수 - EU의 그린 클레임 지침에 근거할 예정
<p>디올, 英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 준수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VMH의 브랜드 디올이 영국 현대판 노예제도 방지를 위한 정보 공개의무를 미이행 - 디올의 영국 웹사이트에는 2024. 7. 19.까지 2020년 현대판 노예제 성명서와 이미 유효기간 경과 지속가능성 인증서만이 게시 - 일부 시민단체는 처벌 규정 도입 촉구
<p>아르마니 및 디올에 대한 이탈리아 내 노동 착취 의혹 관련 조사 착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탈리아 반독점 규제기관 경쟁청 AGCM은 아르마니와 디올의 노동자 착취 의혹에 대해 2024년 7월 조사 착수 - AGCM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회사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안전규정 위반 상태에서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밝힘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신승국 T. (+82) 2 6182 8502
 센터장/미국변호사 E. synn@hwawoo.com

이광욱 T. (+82) 2 6003 7535
 파트너변호사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T. (+82) 2 6003 7558
 파트너변호사 E. klee@yoonyang.com

강석준 T. (+82) 2 6182 8505
 파트너변호사 E. kangsj@yoonyang.com

김정남 T. (+82) 2 6003 8559
 ESG전략 그룹장 E. jnkim@hwawoo.com

양희 T. (+82) 2 6003 7674
 시니어매니저 E. hyang@hwawoo.com